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임정기/편집인 : 김동규/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우리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2010년 4월 현재 188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52, 의과대학 학술지 12, 의학 외 분야 학술지 24)이며, 개인회원이 38명이다.

또한, 특별회원은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XMLink, (주)InfoLumi, Google Inc., JOY DESIGN, NHN(주),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XMLARCHIVE 총 1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 798-3807(내선108))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회원 학술지 납본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 학술지의 학술지 정시 발행을 확인하고, 발간 기일 준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KoreaMed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 학술지를 납본 받고 있다.

모든 회원 학회는 학술지를 발간할 때마다 학술지 원문 파일(텍스트 PDF나 HWP 등)과 인쇄본 2부를 본 협의회

로 납본하여야 한다. 인쇄본은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협의회에 도착한 경우만 정시 발행으로 인정한다. 학술지 별 납본 현황은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 “학술지 제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파일 올리는 곳

www.webhard.co.kr (ID : kamje, PW : kamje)

☞ 인쇄본 보낼 곳

(우)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6층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제3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개최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월 4-5일 이틀간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에서 ‘제 3회 의학 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는 ‘Desk to Publication’으로 실제 편집 실무에 도움이 되고, 전문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이해를 돕고, 최근 정보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강의 뿐만 아니라 실습 시간과 토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편집인들이 참석하여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편집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참석하신 여러 편집인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카데미 관련자료는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 “소식지/Workshop 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편집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 2월 4일(제 1일 과정)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말 및 과정소개
09:10-10:00	논문 출판/연구 윤리
10:00-10:50	편집인/심사자의 역할
10:50-11:00	휴식
11:00-12:00	Tables & Figures
12:00-13:20	점심식사
13:20-14:10	임상시험등록과 논문게재
14:10-14:40	학술지 출판과정
14:40-15:00	휴식
15:00-18:00	(A) 논문편집/심사에 필요한 정보검색 (B) EndNote

◎ 2월 5일(제 2일 과정)

09:00-09:30	Journal Publication의 새로운 방향
09:30-10:00	학술지 Identity Brand화 전략
10:00-10:30	학술지의 Visibility 확대 방안
10:30-11:00	e-Journal Publication의 요건
11:00-11:10	휴식
11:10-12:00	권장보고지침에 따른 논문심사법
12:00-13:20	점심식사
13:20-15:00	학술지 Manuscript Editing 실습
15:00-15:20	휴식
15:20-17:20	(A) 해외 DB 등재 관련 (B) Disclosure Statement (C) 학술지 평가



KoreaMed 등재를 위한 제 25차 신규학술지평가회 개최 안내

우리 협의회에서는 회원학술지 중 아직 KoreaMed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KoreaMed 등재를 위한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가는 자체평가, 실물평가, 협의회 조사 항목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평점 2.5 이상을 받은 학술지는 KoreaMed에 등재된다. 대상학회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편협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Tel:798-3807(내선108)).

- 평가 대상 학술지 : 간호행정학회지, 계명대학학술지, 고신대학교의과대학학술지, 대한고혈압학회지, 대한골관절증양학회지,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 대한두경부중양학회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 대한스포츠의학회지,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대

한폐경학회지, 동국의학, 보험의학회지, 순천향의과학, 원광의과학, 임상당뇨병, 임상약리학회지, 정신병리학, 정신신체의학, 조선대학교의대논문집, 중앙의대지, 충북의대학술지, 한국정신치료학회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한국현미경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sian Nursing Research, Asian Spine Journal,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 Laboratory Animal Research,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Toxicological Research 이상 34종

- 일 시 : 2010년 5월 12일 (수) 오후 4시
- 장 소 : 서울의대 본관 2층 제1교수회의실



2010년도 정기 총회 및 워크숍 개최

지난 3월 30일 서울대학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2010년도 정기 총회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총회 이후에는 “과총 소개 및 학술지 지원 정책”과 “임

상시험 등록과 논문게재”에 대한 특강과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 한 의편협 :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각 상임위원장과 이춘

실 정보관리위원이 직접 연자로 나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특강과 워크숍 자료는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 “소식지/Workshop 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번 총회에는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이 회원학회 편집인을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다. 아래에 전재한다. -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격려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자생적인 모임으로 1996년에 결성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는 학술지 편집체제 개선, 의학논문의 국제유통 그리고 출판윤리 부문에서 학술지의 수준향상과 Global standard를 주도하는 가장 권위있는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의편협은 지난 14년 동안 국내 학술지들이 PubMed와 SCI를 비롯한 유명 국제 색인 기관에 대거 등재 되는 데 있어 촉매 역할을 하였고 학술지 국제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구글(Google)과 같은 인터넷포털에서도 한국 의학 지식 정보의 보고로서 KoreaMed의 가치와 수준을 아주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국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의학연구자와 국민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학술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헌신과 봉사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보기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 차원의 사업을 외부 예산 지원 없이 순수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주도하여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함께 의학 정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편협은 대한의학회에서 발의하여 만들어진 대한의학회의 산하 협의체이지만 이제는 의학회의 권위를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의편협은 우리 의학계의 자랑이며 이러한 단체를 산하기구로 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의학학술지 편집인들과 의편협 임원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학술기여 활동과 헌신이 오늘날의 의편협을 이룬 원동력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임정기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그리고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편협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30
대한의학회 회장 김성덕



과총 학술지 국제화지원 사업

머 리 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은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과학기술학회의 연합체이다. 지금도 많은 의편협 회원단체가 과총의 지원을 받아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는 이런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학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곳은 연간 예산기준 10억 이상(13%/42개 학회) 대형학회와 의학 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빈익빈 부

윤호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본부 학술지원 팀장)

익부 현상이나 80 대 20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우려하기도 하나, 현실은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회나 학술지도 선별 지원하여 국제 수준으로 육성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학술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규모나 연구역량으로 보아 더 이상 변방의 학술지로 남아서는 곤란하다. 소수부터 집중 육성하여 국제 학술지로 키우는 차별화 전략을 펴야 한다.

여기서는 과총의 학술지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인 학술지 국제화지원 사업을 설명하여 앞으로 학술지 편집인의 활동과 학술지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 국제화 지원 사업 이외 SCI(E)등재 학술지 지원 사업, 영문학술지

지원 사업 및 국문학술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한다. SCI(E)등재 학술지 지원 사업 및 영문학술지 지원 사업은 국제화사업과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학회를 지원하고, 과총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613종(등재지:439,등재후보지:172)를 발간하는 학술단체 531곳(학회:507, 학술단체:24)를 지원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음으로 더욱 많은 학회가 과총에 가입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였다.

▲ 학술지 국제화지원 사업 내용

목표 : 2020년까지 과총 회원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포함 국내 학술지 170종 이상을 SCI(E)학술지로 등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정 : 2010년도 2월 말 현재 74종 등재된 상황이므로 매년 10여종을 선정 지원하여 SCI(E)학술지로 등재될 때까지 3년 또는 5년 기한 동안 지원 예정이다. 2011년도에 10개 학술지 선정 지원 예정이다.

선정 기준 : 다음 요건에 맞는 학술지 가운데서 편집 수준을 평가하여 지원한다. 선정에 위한 지원신청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과총 데이터베이스에 학회 및 학술지 정보를 입력하면 그 내용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1) 영문 학술지
- 2) 연간4회 이상 40편 이상 발행 (웹 학술지는 호 없이 연간 40편 이상)
- 3) 전문 Open access 또는 Free Access
- 4)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prefix 및 랜딩페이지
- 5) pISSN 및 eISSN
- 6) 별도 도메인의 영문 학술지 누리집
- 7) 영문 온라인투고시스템이 있거나, 이메일로 투고 받아서 외국인도 어려움 없이 투고 가능
- 8) 편집위원의 국제성(3개 대륙에서 최소 1인 이상)
- 9)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학술지 지원 대상은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역

- 1) Manuscript editing
- 2) 학술지 디자인 및 레이아웃 개선
- 3) 영문 원고 교열
- 4) 저명 학자 논문 유치
- 5) DOI Landing Page, DOI XML, PMC XML
- 6) e-Journal 홈페이지, eISSN
- 7) 온라인 투고관리 시스템
- 8) 계량서지학 분석 정보
- 9) 투고규정 및 출판윤리규정
- 10) 편집인 워크숍

지원 규모 : 연 100편까지 모든 항목 지원

배 경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학자들의 연구 역량이 매우 높아 SCI(E)학술지 이외는 투고받기가 힘들고 경비가 충분치 않아 원고편집을 국제 학술지 수준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학술지가 DOI와 같은 국제적인 학술지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원고편집이나 DOI 같은 작업을 저자 게재료에서 모두 부담하면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은 게재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DOI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편집인의 이해도 부족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과학기술 발전에 지원을 높여갈 때 국내 학자의 수준은 점점 높아져 국제저명 학술지만을 선호하게 되고 국내 학술지는 결국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학술지를 통하여 과학의 발전 내용이 전파되는 것이므로 국제 학술지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 나라의 국부와 연관된다. 또한 이런 매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역시 연구 자체와 또 다른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셈이다. 정부는 연구논문 자체의 우수성, 결과의 우수성과 더불어 매체의 우수성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러 학회가 국내 출판사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외국상업출판사로 저작권이나 온라인판권을 넘기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결국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이 자유롭게 내용을 볼 수 없으므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술지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술지는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Open access나 Free access로 국제 학술지 수준에 맞추어 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술지 편집인이 봉사차원이지만 전일제 일이 아니므로 편집을 지원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온라인 출판을 국제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맺 는 말

학술지 내용 자체는 결국 투고자나 학회 구성원의 연구 역량 및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수준과 관련이 있어 단시일에 향상되기는 어렵지만 학술지의 스타일과 형식은 이런 지원을 통하여 바로 국제 학술지 수준으로 향상이 가능하다. 결국 형식이 훌륭하면 내용도 따라 온다는 상식에 비추어 학술지 국제화지원 사업은 학술지 형식을 국제표준으로 맞추고 국제유통 활성화 기반을 국제수준으로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편협 학술지 가운데 이미 5종의 학술지가 동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더 많은 학회가 이 학술지 국제화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학술지를 운영하기 바란다.

※ 이 내용은 2010년 3월 30일 개최된 의편협 총회 워크숍 발표 내용의 일부임.

관련문의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지원팀(Tel:3420-1251)으로 하기 바란다.